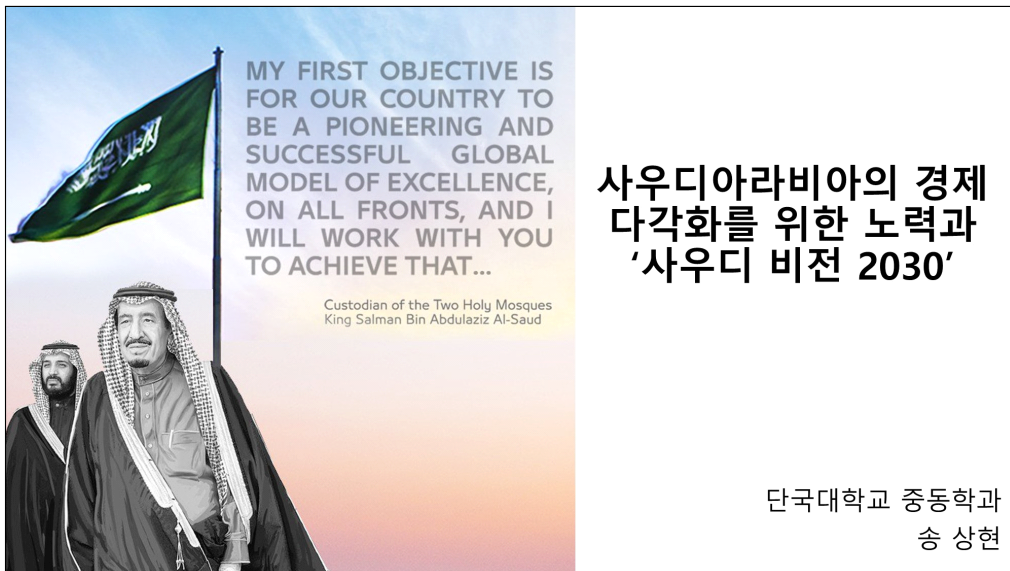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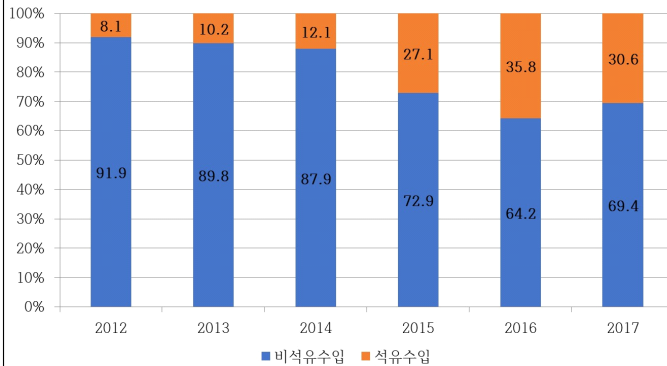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다각화를 위한 노력과 사우디 비전 2030

송상현 | 단국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특징(1)

<그림 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수입 구성 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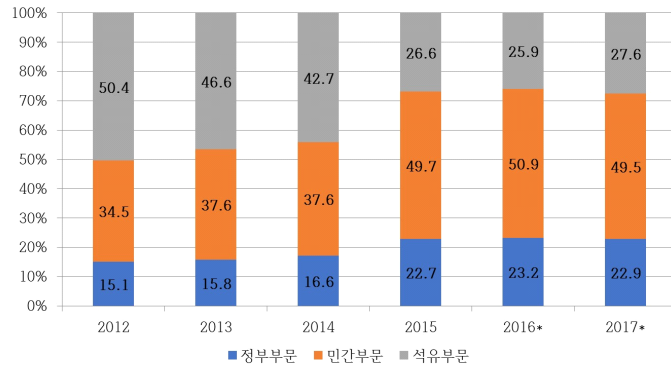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는 G20의 회원국이며 세계 최대의 석유수출국으로 정부수입과 GDP의 약 88%와 43% 가량(2014년 기준)을 석유로부터 얻고 있는 독특한 Rentier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난 몇 년 간 정부수입에서 비석유부문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35.8%를 기록하였지만, 2017년에는 30.6%로 감소함(그림 1 참고)

출처: Saudi Ministry of Finance
https://www.mof.gov.sa/en/financialreport/budget2017/Documents/The_National_Budget.pdf
<https://www.mof.gov.sa/en/financialreport/Documents/171119%20Infographic%20q3%20eng%20H.pdf>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특징(2)

<그림 2. 사우디아라비아 GDP구성 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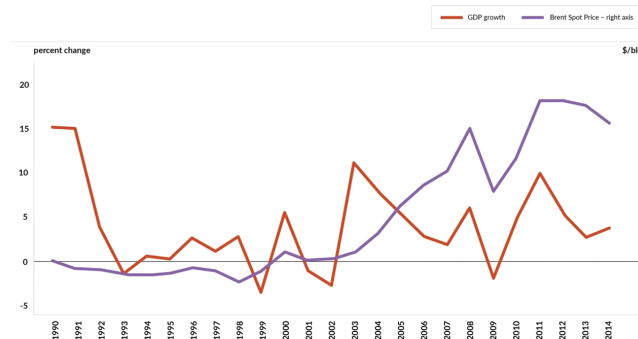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GDP에서 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2분기 25.9%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2분기에는 1.7% 상승한 27.6%를 차지함
 - 반면 2012년 이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GDP 차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7년 2분기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그 비중이 다소 축소됨(그림 2 참고)

출처: Saudi Central Authority for Statistics
 * 2016, 2017년도 2분기 데이터 활용
 총GDP에서 수입관세는 제외함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특징(3)

<그림 3. 사우디아라비아 GDP성장률과 유가의 관계>



- 석유산업에 기반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GDP의 증가와 함께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하였지만, 경제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 채 진정한 의미의 경제 발전에는 그 한계를 보임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비석유부문의 GDP기여율이 낮기 때문에 GDP성장률이 유가변동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보임(그림 3 참고)

출처: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MF.
<https://www.gisreportsonline.com/infographics-modal-15>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다각화를 위한 노력(1)



- 유한한 자원의 석유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유가변동에 취약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경제 다각화 정책을 1970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왔으나, 기대만큼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1970년 이후 오늘날까지 총 10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다각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 결과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는 GDP에서 석유부문을 제외한 다른 생산적 산업분야의 기여도를 높이고, GDP에서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강화하는 반면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는 것임
- 하지만 카타르, UAE와 같은 이웃 GCC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함 경제 다변화를 향한 정책과 경제계획의 실행속도는 여전히 느릴 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이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다각화를 위한 노력(2)

<표 1. 유가변동에 따른 민간부문 성장의 불안정성>

연도	경제개발 계획	민간부문 성장률(%)	유가변동 (%)	민간부문 성장률차이(%)	유가변동률 차이(%)
1970-1974	1차	0	0	0	0
1975-1979	2차	131	103.6	131	103.6
1980-1984	3차	43.2	77.2	-87.8	-25.9
1985-1989	4차	-8.2	-51.8	-51.4	-129.5
1990-1994	5차	11.2	-29.5	19.4	22.3
1995-1999	6차	15.7	-14.1	4.5	15.4
2000-2004	7차	25.1	62.9	9.3	77
2005-2009	8차	54.5	51.4	29.4	-11.5
2010-2014	9차	46.8	64.8	-7.7	13.4

출처: Banafea and Ibnrubbian(2018)

- 1-7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민간부문성장률과 유가의 변동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임. 이는 민간부문의 성장을 유가와 정부지출(대부분의 수입을 석유 수출로 거둬들여)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나타냄.
- 하지만 경제 다각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으나, 8차와 9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민간부문성장률과 유가의 변동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남. 이는 민간부문 성장률과 유가의 상관관계가 지난 1-7차 경제개발계획 기간보다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다각화를 위한 노력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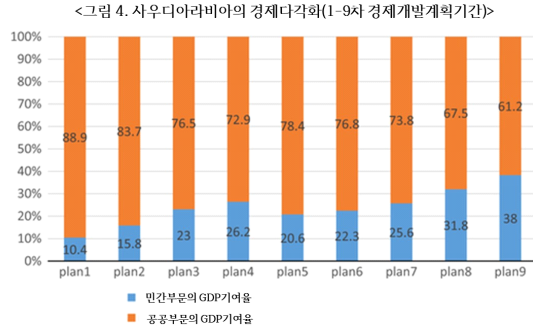
<표 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GDP기여율>

연도	경제개발 계획	민간부문 평균(백만SR)	공공부문 평균(백만SR)	총 GDP (백만 SR)	민간부문 GDP기여율 (%)	공공부문 GDP기여율 (%)
1970-1974	1	76,976.29	660,361.2	742,557.3	10.4	88.9
1975-1979	2	177,809.1	943,609.8	1,127,093	15.8	83.7
1980-1984	3	254,584.2	847,847	1,107,859	23	76.5
1985-1989	4	233,759.3	649,720.2	891,523.3	26.2	72.9
1990-1994	5	259,955.3	987,105.3	1,259,156	20.6	78.4
1995-1999	6	300,883.7	1,038,593	1,352,016	22.3	76.8
2000-2004	7	376,313.9	1,084,546	1,470,117	25.6	73.8
2005-2009	8	581,296.9	1,233,129	1,826,712	31.8	67.5
2010-2014	9	853,364.4	1,373,324	2,244,670	38	61.2

출처: Banafea and Ibnrubbian(2018)

- 9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민간부문의 GDP 기여율이 상당히 증가함. 민간부문의 GDP기여율은 비록 느리지만 꾸준한 증가함.
- 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10.4%였던 민간부문의 GDP기여율은 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에 15.8%로 증가하였으며 3차, 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도 23%와 26.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하지만 5차, 6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민간부문의 기여율이 20.6%와 22.3%로 다소 낮아짐. 이는 1990년대 유가가 하락한데 기인함.
- 7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민간부문의 GDP기여율이 25.6%를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8차와 9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31.8%와 38%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다각화를 위한 노력 (4)



- 민간부문과는 대조적으로 공공부문의 GDP기여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함.
 1차부터 4차까지 경제개발계획 기간 공공부문의 GDP기여율은 88.9%, 83.7%, 76.5%, 72.9%로 꾸준히 감소함.
 5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78.4%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6차부터 9차까지 경제개발계획 기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9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에는 61.2%를 기록함.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점진적으로 경제 다각화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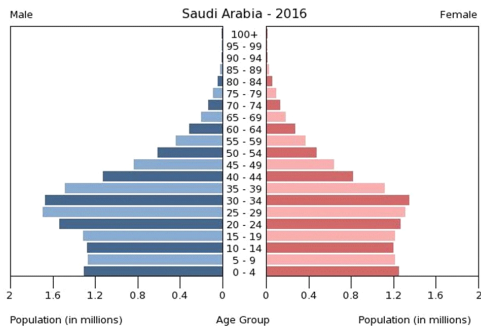
'사우디 비전 2030'의 등장 배경(1)

<표 3. 무함마드 빈 살만 왕권 승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정치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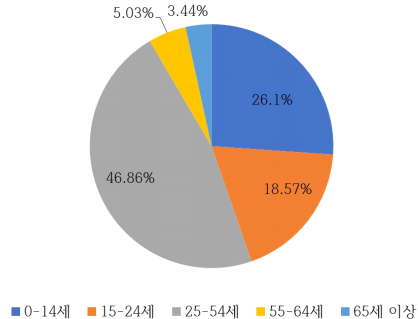
일자	정치적 사건
2015년 1월 23일	무르킨 빈 압둘아지즈를 왕세제와 제1부총리에 임명.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부왕세제(Vice Crown Prince)에 임명. 무함마드 빈 살만을 국방장관에 임명
2015년 1월 29일	새롭게 설립된 경제개발이사회(Council for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의장에 무함마드 빈 살만 임명 정치안보위원회(Council of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의장에 무함마드 빈 나예프 임명
2015년 3월	에멘 내전에서 개입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이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에서 경제개발이사회 산하기관으로 이전
2015년 4월 29일	무르킨 빈 압둘아지즈가 왕세제와 제1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남.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왕세제와 제1부총리에 임명. 무함마드 빈 살만을 부왕세제에 임명
2015년 9월 30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창건한 이븐 사우드 국왕의 손자가 작성한 국왕교체를 요구하는 서한 공개
2016년 3월	사우디 아람코의 소유권이 공공투자기금으로 이전될 것이고 아람코 지분의 5%를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함
2016년 4월 25일	'사우디 비전 2030' 발표(2020년까지 석유의존을 탈피한 경제구조 기반 구축: 기업공개로 아람코 지분 5% 매각 후 국부펀드 2조 달러 조성)
2016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내각은 고압적 태도를 보여온 종교경찰의 체포권을 제한하는 안을 승인
2016년 5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으로 21년간 재직하였던 알리 알 나이미 경질.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아람코 회장이 새 석유장관에 임명
2017년 6월 21일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왕세제, 제1부총리, 내무부장관 직에서 축출하고 가택연금. 무함마드 빈 살만을 왕세자로 임명
2017년 7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는 사리아 규정에 따라 올해와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체육 수업 소개하겠다고 발표
2017년 7월 20일	살만 국왕은 7월 20일 왕세제에서 물러난 조카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가 이끌던 내무부의 안보 치안관련 부서들을 새 기관으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정보-수사기관과 특수부대, 테러대 대응 기관 모두 국왕의 직속 관할 아래 둬, 이러한 조치로 내무부는 교통·이민·공향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규모 축소
2017년 9월 26일	살만 국왕 칙령으로 2018년 6월부터 여성운전 허용
2017년 10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아델 알 주바이르는 모스크바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성직자 수 천명 해고 발표
2017년 10월 24일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인사이드' 행사에서 미래형 주거사업용 신도시 내움(NEOM)건설을 발표
2017년 10월 29일	사우디 스포츠청은 2018년부터 여성 스포츠 경기 관람 허용
2017년 11월 4일	사우디 반부패위원회가 부정부패 척결을 이유로 왕자 11명과 전직 장차관급 인사, 사업가 38명 등을 체포: 무타입 빈 압둘라(알달라 전 국왕 아들) 국가수비대 사령관 직위 해제된 뒤 체포, 압둘라 빈 술탄 빈 무함마드 해군사령관 체포, 킹덤홀딩스를 소유한 알리드 빈 말랄 왕자 체포. 아델 파케이즈 경제기획장관 해임. 만수르 빈 무르킨 왕자(아시프주의 부지사로 무르킨 빈 압둘아지즈 전 왕세제의 아들)와 정부 고위관료 7명 남서부의 아시프 주도 이브라 인근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 압둘아지즈 빈 파흐드 왕자(무함마드 빈 나예프의 전 왕세제의 측근) 체포과정에서 총격으로 발사된 부상을 입고 다들날 사망. 사우디 최대 건설사인 사우디 빈라딘 그룹의 마크르 빈 라덴 화합 추궁 → 이윤의 순환개화를 전면 통폐하고 임의가 밝혀지면 연관된 돈은 모두 사우디 재무부로 상환. 검찰에 따르면 1,000억 달러(약 111조 8,000억원)에 달하는 부패조사와 관련해 9월까지 최소 201명이 체포되고 1,700여 명의 계좌 동결

'사우디 비전 2030'의 등장 배경(2)

<그림 5.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피라미드 2016>



<그림 6. 사우디아라비아 연령별 인구 구성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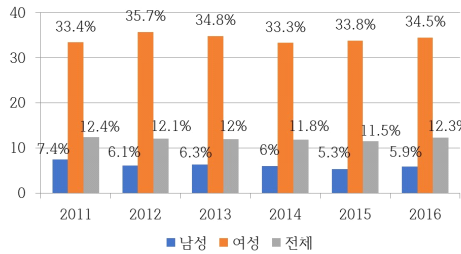
출처: Indexmundi
https://www.indexmundi.com/saudi_arabia/age_structure.html

출처: Indexmundi
https://www.indexmundi.com/saudi_arabia/age_structure.html

'비전 2030' 발표를 통해 무함마드 빈 살만이 경제개혁의 선봉장으로 본격 등장하면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력 확대와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의 회기를 실시하면서 인구의 약 50%와 6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과 30세 미만 젊은 계층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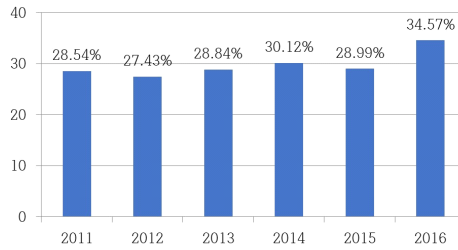
'사우디 비전 2030'의 등장 배경(3)

<그림 7.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 실업률 2011-2016>



출처: 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49th, 51st, 53rd Annual Reports)

<그림 8. 사우디아라비아 청년 실업률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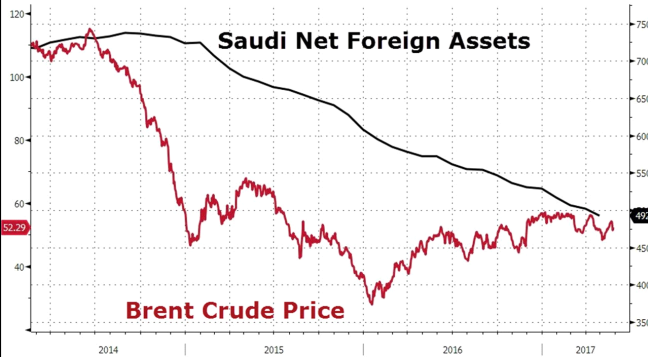


출처: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12955/youth-unemployment-rate-in-saudi-arabia/

-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의 전체 실업률은 2014년 11.8% 2016년 12.3%로 증가함. 남성의 실업률은 2014년 6%에서 2015년 5.3%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다시 5.9%로 증가. 여성의 실업률은 2014년 33.3%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33.8%와 34.5%로 꾸준히 증가함.
- 특히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2014년 30.12%에서 2016년 34.57%로 크게 증가하면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대두됨.

'사우디 비전 2030'의 등장 배경(3)

<그림 9. 사우디아라비아 외환보유고 추이 2014-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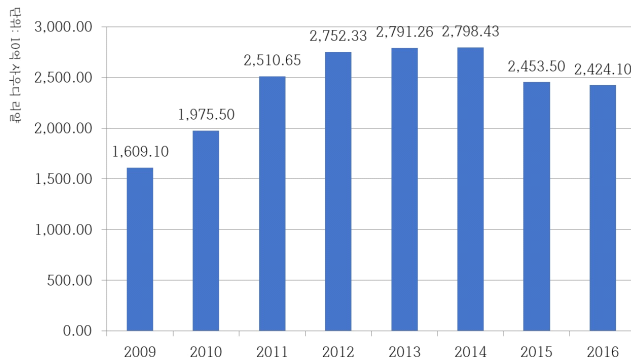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5-28/saudi-net-foreign-assets-dip-below-500-billion-in-april

-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와 함께 세일오일, 오일샌드와 같은 비전통적 석유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하여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의 취약성을 노출함
- 2014년 7,30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 외환보유고는 2017년 4월 4,930억 달러로 약 1/3가량 감소함

'사우디 비전 2030'의 등장 배경(4)

<그림 10. 사우디아라비아 GDP 2009-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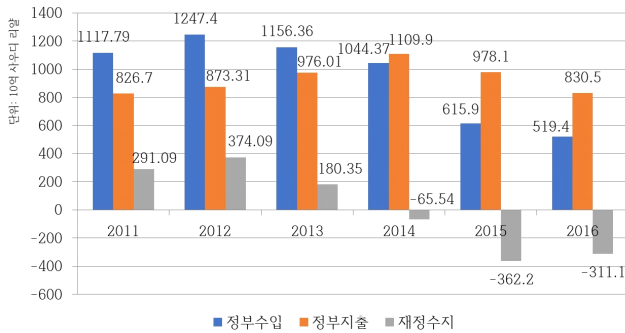


출처: 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49th, 51st, 53rd Annual Reports)

- 사우디아라비아의 GDP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사우디아라비아 GDP 역시 2014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저유가의 여파로 2014년 2조 7,984억 사우디 리얄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조 4,535억과 2조 4,241억 사우디 리얄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사우디 비전 2030'의 등장 배경(5)

<그림 11.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수지 2011-2016>



- 유가 하락에 따른 정부수입원 감소로 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부터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1조 1,099억 SR이었던 2014년 정부지출이 2015년 9,781억 SR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조 444억 SR이었던 정부수입이 약 40% 줄어든 6,159억 SR을 기록하면서 2014년 655억 4,000만 SR이었던 재정적자가 2015년에는 3,622억 SR로 5배 이상 급증함. 2016년 정부지출은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8,305억 SR인 반면 정부수입은 5,194억 SR로 재정적자의 폭이 3,111억 SR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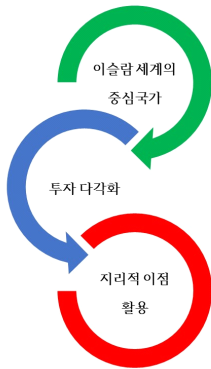
-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34%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4.8%와 12.8%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7년 정부수입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약 1,850억 달러, 정부지출은 7.9% 증가한 약 2,370억 달러를 기록하여 재정적자의 규모가 530억 달러(GDP대비 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출처: 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51st, 53rd Annual Reports)

'사우디 비전 2030'의 내용과 특징

<그림 12. '비전 2030'의 3가지 비전>



-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당시 부왕세자)가 2016년 4월 25일 발표한 '비전 2030'은 경제다각화와 석유자원 고갈을 대비한 준비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로드맵을 제시함. 경제, 정치, 그리고 정신적 청사진으로서 '비전 2030'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비전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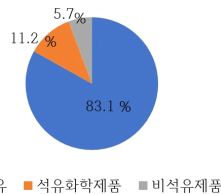
<표 4. '비전 2030'의 7가지 주요사업과 사업목표>

7가지 주요사업	사업목표
이슬람 중심지	2020년 1,500만 명, 2030년 3,000만 명의 성지 순례객 방문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글로벌 투자국	공공투자기금(PIF)을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로 육성
무역과 교통의 허브	국제 무역과 교통의 허브국가 건설
경제다각화	경제다각화를 통한 비석유부문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아람코 기업공개	아람코 기업공개를 통해 비석유부문에 기반한 경제구조 구축에 필요한 자금 확보
정부개혁	국가경영의 개선을 통한 개혁과 경제개발 촉진
사회복지와 보건	이슬람의 가치 하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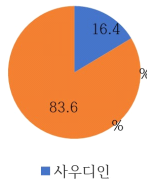
출처: Al-Arabiya의 Saudi Arabia's Vision 2030 Full Text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사우디 비전 2030'의 도전과제

<그림 13. 사우디아라비아 수출품목>



<그림 14. 민간부문 노동력 구성>



<그림 15. 사우디아라비아 FDI 2008-2018>



출처: tradingeconomics.com, SAMA, <https://tradingeconomics.com/saudi-arabia/foreign-direct-investment>

- Rentier State경제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다양한 혜택 축소(정부 보조금, 프리론(free loan), 낮은 에너지 요금, 관대한 정부계약과 우호적인 구매 조건)
-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단순하고 초보적인 제품생산으로 경제적인 부 창출에 한계)
- 민간부문 특히 비 석유부문 발전을 통한 수출확대(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서 석유 83.1%, 석유화학제품 11.2%, 비석유부문 제품이 5.7%를 차지)
- 민간부문 전체 노동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의 취업을 재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2015년 현재 민간부문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83.6%)
- 이웃 국가들에 비해 낙후된 물류 서비스 개선(사우디아라비아 9개 항구에서 물류처리 소요되는 기간은 두바이 항구보다 평균 4일이 뒤짐)
- 민간부문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시장 육성(사우디 아람코 기업상장을 통한 PIF 자금확보가 관건)
- 법적 제도적 환경개선(신속하지 못한 분쟁해결 과정, 시대에 뒤쳐진 독점금지법·투매방지법,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는 파산법)
- 글로벌화 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시스템과 연구환경의 혁신
-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연기(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채무를 제 때에 이행해야 함)
-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FDI(사우디아라비아의 FDI는 2010년 4분기 117억 4,654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이래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 4분기 2억 6,400만 달러로 최저를 기록함)

감사합니다